



♡ 유임정 10기 - 합.격.수.기. ♡

수강생명	김 ○○ 수강생			수강방식	인강
응시지역	전북			병행 여부	학부 병행
공부경력	초수			등수	전북 13등
점수	1차	교육과정: 57	논술: 18	2차	수업실연: 60      면접: 38.93

좌우명	노력은 헛된 법이 없다.
-----	---------------

시작하는 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 1년 동안 공부하며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구를 보고 합격 수기를 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 날이 오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저는 유아교육과 4학년 학생으로 학부를 병행하며 시험을 준비하였고, 1차와 2차 모두 박수민 강사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처음 하는 공부여서인지 공부 방법 측면에서 부족한 점과 후회되는 점이 많고, 그 결과 교육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공부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함께 적을 테니 참고해 주세요.

저는 1) 임용 시작 전 공부를 계획할 때 2) 내 공부 방법이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 들 때 3) 공부하며 불안한 마음이 가득할 때, 주로 이런 순간에 합격 수기를 찾아보고는 했습니다. 아마 이 수기를 읽는 선생님들도 비슷한 마음이겠지요? 정말 다양한 합격 수기들을 읽어보았지만, 공부 방법에 있어 결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수기 또한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삼아 선생님만의 공부 방법을 수립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1~10월 시기별 (월별 혹은 강좌별) 공부 계획 및 방법 (유입정 강의 활용 방법)

개론 및 각론

▶ 1~2월 : 개론 #공부 습관 형성

\* 공부 계획 및 공부 방법은 개론과 각론을 유사하게 적용하였습니다.

▷ 공부 계획 세우기

저는 박수민 강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공부 계획을 바탕으로 일주일 계획을 수립한 후, 매주 일요일에 차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시간대별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적어두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계획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세워 두었지만, 1~2월에는 공부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부가 끝나는 대로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열정이 가장 불타오르는 시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의 공부를 당겨서 하게 되면 미리 세웠던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꾸준히 공부하지 못할 것 같아서 딱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할당량만 완벽하게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공부 계획 예시 ]

[ 1월 공부 계획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	6	7	8	9	10	11
	[연강] 3~4강 개요도 제작 및 읽기 2강 연습	[연강] 5~6강 개요도 제작 및 읽기 3~4강 연습	강의 영역 전체 읽기 (1차)	기출문제 시험 [연강] 7강 기출 예상 전체 영역 읽기 (2차 - 기출 연강)	[연강] 7강 기출 예상 (3차 - 4차 - 5차)	강의 영역 전체 읽기 (6차)
12	13	14	15	16	17	18
DAY OFF	1주차 테스트 응시	[연강] 10~11강 개요도 제작 및 읽기	[연강] 12~13강 개요도 제작 및 읽기	1주차 ①② 연습	기출문제 시험 [연강] 14강 기출 예상	1주차 전체 영역 연습
[계절학기] 3주차 강의 수강 및 읽기 1주차 ③④⑤ 연습	2주차 ③④⑤ 연습	8~9강 연습	10~11강 연습	강의 영역 전체 읽기 (1차 - 2차)	강의 영역 전체 읽기 (3차 - 기출 연강)	강의 영역 전체 읽기 (4차)
19	20	21	22	23	24	25
DAY OFF	2주차 테스트 응시	[연강] 16~17강 개요도 제작 및 읽기	[연강] 18강 개요도 제작 및 읽기	1주차 전체 영역 연습	강의 영역 전체 읽기 (2차 - 3차)	강의 영역 전체 읽기 (4차)
[계절학기] 4주차 강의 수강 및 읽기 + 전체 범위 읽기	1주차 전체 영역 연습	15강 연습	16~17강 연습 3주차 전체 영역 연습	강의 영역 전체 읽기 (1차)	2주차 전체 영역 연습	다음주 영역 예상
26	27	28	29	30	31	1
DAY OFF	[연강] 누리 1~2강 개요도 제작 및 읽기	[연강] 누리 3~4강 개요도 제작 및 읽기	[연강] 누리 5~6강 개요도 제작 및 읽기	[연강] 누리 7강 개요도 제작 및 읽기	1주차 전체 영역 연습	3주차 전체 영역 연습
2~3주차 단원용 제작	2주차 전체 영역 연습	3주차 ①② 연습	3주차 ③④⑤ 연습	강의 영역 전체 읽기 (1차 - 2차)	2주차 전체 영역 연습	다음주 영역 예상

[ 1월 1주 공부 계획 ]

TIME	5일 (일)	6일 (월)	7일 (화)	8일 (수)	9일 (목)	10일 (금)	11일 (토)
8:00~9:00 (해 - 이 - 실)		[해설서] 누리과정의 생각·구성방안	[해설서] 누리과정의 구성방안·운영	[해설서] 누리과정의 운영	[해설서] 신·육·사	[해설서] 액·가	[해설서] 고시은 전체 읽기
9:00~12:30 (3시간 30분)	[해설서] 누리과정의 이해	[연강] 3강	[연강] 5강	강의영역 전체 읽기 1차 (2강·3강)	기출문제 시험	강의영역 전체 읽기 3차	강의영역 전체 읽기 6차
12:30~13:30	개요도 만들고 읽기하기	개요도 만들고 읽기하기	개요도 만들고 읽기하기	다음주 영역 예상	점심 식사 및 휴식		
13:30~17:30 (4시간)	[연강] 12강·2강	[연강] 4강	[연강] 6강	강의영역 전체 읽기 (4차 - 5차)	강의영역 전체 읽기 2차 (기출 연강)	강의영역 전체 읽기 4차	다음주 영역 예상
17:30~18:30	개요도 만들고 읽기하기	개요도 만들고 읽기하기	개요도 만들고 읽기하기	저녁 식사 및 휴식			
18:30~21:00 (2시간 30분)	3강·4강 백지쓰기 요약자료 정리	5강·6강 백지쓰기 요약자료 정리	7강·8강 백지쓰기 요약자료 정리	강의영역 전체 읽기 1차 (6강)	강의영역 전체 읽기 2차 (기출 연강)	강의영역 전체 읽기 5차	다음주 영역 예상
21:00~23:00	운동·미유리 공부(전일 강의 내용 연습) 및 익일 공부 계획 수립						

▷ 강의 수강 및 공부 방법

1) 강의 수강 및 필기

이 시기에 공부하는 습관을 잘 형성해 두어야 끝까지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스터디 카페에 도착 후 루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 공부하는 동안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 등 크고 작은 공부 습관을 형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일주일 중 3일 동안 강의를 나누어 수강하고, 남은 3일은 강의 수강한 내용과 누적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본 강의는 다시 되돌려보지 않는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정해두고 집중해서 수강하였고, 강사님의 말을 모두 받아 적기보다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과 책에 나오지 않지만 암기해야 할 내용을 위주로 필기했습니다.



3) 기출 분석

기출 문제를 풀 때 따로 시간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풀고 해설 강의를 수강하였어요. 처음에는 어떤 형식으로 답을 써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범 답안을 보고 그대로 옮겨 적어보거나 제 답안을 수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것에 따라 진술 방식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요구 사항에 따른 진술 방식을 표로 정리하고 기출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씩 훑어보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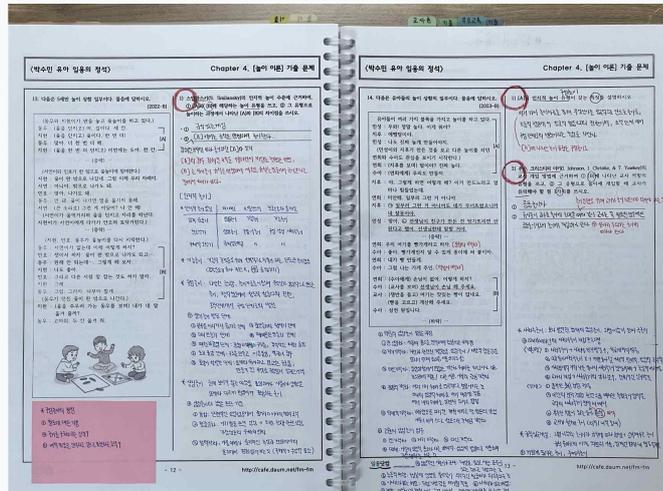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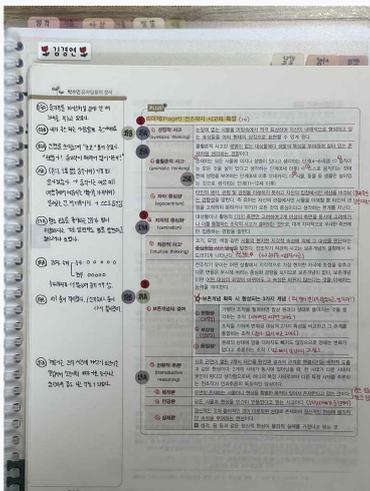
[진술 방식 정리 예시]

〈진술 방식〉	
차이	A는 - 인 반면, B는 -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징	- 라는 특징이 있다.
이유	- 때문이다.
이유를 사해와 관련지어	A는 - 인데, (사해)와 같이 - 이기 때문이다.
개념을 사해와 관련지어	(사해)와 같이 A란 - 이다.
해당 단계라고 판단한 이유	A단계는 - 하는 특징이 있는데, (사해)도 -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 분석	- 는 A이고, - 는 B이다. (구분)
개입 방안	(구체적 사해)와 같이 A 하거나, (구체적 사해)와 같은 B 할 수 있다. (* 구체적 사해 포함)
단계 비교	- 는 A단계로 - 한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 는 B단계로 - 한다는 특징이 있다.
참양쓰시오	- 라는 점이다 (사해 안고 쓰기)
잘못된 점	- 해와 하는데 - 한 점이 잘못되었다.

\* 문장에서 요구하는 내용 중그라미  
\* 기호 및 개인적 확인 (기호가 두 개씩 있을 수 있다.)  
\* 대지은 꼭 읽기 (대지은에도 단서가 제시되어 있을 수 있다.)

해설 강의 수강 후에는 ① 문제를 다시 살펴보며 기본서에 스티커로 표시하고 ② 키워드 중심으로 문제와 답안을 필기하였고, ③ 기출 문제지에는 해당 문제에서 제시된 이론을 모두 적어보습니니다. ①, ②는 기본서만 보아도 어떤 내용이 기출로 출제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어 이후 공부할 때 도움이 되었고, ③은 이전에 출제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며 한 번 더 인출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출 공부 방법]



▶ 3~4월 : 각론 (신 · 의 · 사) #학부 병행

\* 공부 계획 및 공부 방법은 개론과 각론을 유사하게 적용하였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어 학부를 병행하며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듣는 이틀을 제외하고는 1~2월과 동일하게 공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학부 과제로 인해 변동 사항이 많다 보니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제 성격상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1~2월에는 12시 이전에는 꼭 잠들었는데, 이 시기에는 새벽 공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계획한 공부를 모두 끝내지 못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날이 많아지며, 성취감은 낮아지고 공부 의욕도 떨어졌습니다. 재학생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학기 중에는 조금 더 여유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려요.

▶ 5월 : 교생 실습

저는 학부를 병행하며 임용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5월에 교생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실습을 경험해 본 선배들이 모두 실습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공부할 힘이 없었다고 하여 5월은 한 템포 쉬어 간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내려놓고 실습에 집중했습니다. 실습이 2차를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수기를 많이 보았는데, 개인적으로는 공부의 내용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남은 기간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활력을 얻게 되어 정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실습 중에 공부를 하신다면, 강의를 듣기만 하고 복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에 배운 개론과 각론(신·의·사)을 탄탄히 잡아두는 방향으로 복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6월 : 각론 (예·자) #밀린 진도 따라잡기

이 시기에는 밀린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 하루에 2~3개씩 강의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상기하기 위해 저녁 시간 이후 4시간 30분 정도 할애했습니다. 특별한 공부 방법은 없고, 밀린 강의 듣고 최대한 꼼꼼히 암기하기에 초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7월 전까지 모두 끝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외워지지 않는 내용은 계속해서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해당 내용을 일주일 분량으로 나누어 매일 반복해서 외우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 7~8월 : 문제풀이반 #다지기

▷ 공부 계획 세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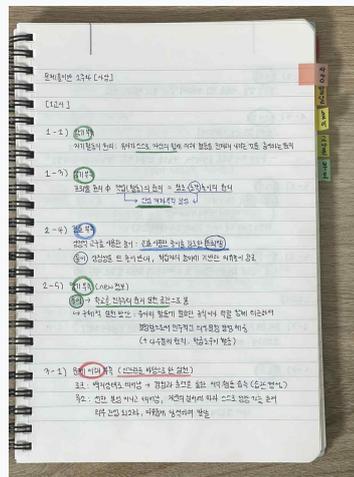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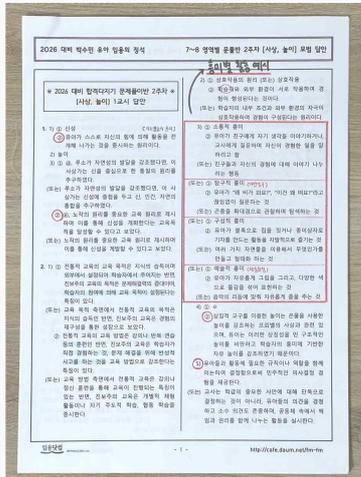
문제풀이반은 지금까지 이해하고 암기한 내용을 문제로 풀어봄으로써 다지는 시기입니다. 해설 강의를 일요일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문제 풀이 및 강의 수강을 월요일로 계획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시험 영역과 추가 영역을 3:2의 비율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남은 추가 영역을 보충하고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 기억에 의존하여 문제를 풀지 않도록 문제 풀이 전날은 꼭 시험 영역이 아닌 다른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 문제 풀이 후 공부 방법

문제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맞추어 풀었습니다. 첫 주에 문제를 풀고 채점하니 처음부터 다시 암기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일주일 정도는 전 영역을 다시 암기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다음 주부터 문제 풀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시험에서 내가 아는 이론을 백지에 적어 내는 것이 아닌 그 내용을 문제에 적용해 풀어내야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우선 문제를 풀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반에서의 공부 순서는 ① 채점 후 답안 수정 · 보완 및 틀린 이유 분석 ② 해설 강의의 수강 ③ 답안지에 암기 필요한 내용 표시 ④ 틀린 문제 한 번 더 살펴보기 ⑤ 오답 노트 작성입니다. ①은 개론 · 각론 기출 문제를 공부한 것과 같고, 틀린 이유는 크게 진술 부족, 암기 부족, 이해 부족, 실수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③의 경우, 제가 알지 못했던, 암기가 필요한 키워드나 내용은 형광펜으로, 암기하면 좋을 예시들은 색연필로 표시해 두었어요. 밥 먹을 때나 자투리 시간이 생겼을 때, 이 내용을 보며 공부했습니다. ⑤의 오답 노트는 앞선 과정을 거치고 작성하니 틀린 문제와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키워드 중심으로만 간단히 작성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오답 노트는 해당 파트를 공부할 때 함께 보며 문제를 떠올리고 관련 개념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습니다.

[ 답안지 표시 · 오답 노트 예시 ]



▶ 9~10월 : 동형 모의고사반 #실전 연습

▷ 공부 계획 세우기

합격 수기에서 본 내용을 바탕으로 1차 시험 하루 전에는 전 영역을 1회독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듣고 내면화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실제로는 이 일정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였고, 유동적으로 조정하며 공부해 나갔습니다.

[9~10월 회독 일정]

★ 9-10월 회독 일정 ★

9월				10월				11월							
1	월	신체	1	29	월	신체	1	27	월	신체, 예술	1	27	월	신체, 예술	1
2	화	의사	1	30	화	의사	1	28	화	역사	1	28	화	역사	1
3	수	수학	1	1	수	사회	1	29	수	문학	1	29	수	문학	1
4	목	사상	1	2	목	역사	1	30	목	신, 영	1	30	목	신, 영	1
5	금	역술	1	3	금	예술	1	31	금	사, 계	1	31	금	사, 계	1
6	토	예술 (음악)	1	4	토	자연	1	1	토	자, 운	1	1	토	자, 운	1
7	일	모의고사 1회		5	일	8월 모의고사		2	일	신, 의	1	2	일	신, 의	1
8	월	신체	2	6	월	운영	1	3	월	사, 계	1	3	월	사, 계	1
9	화	의사	2	7	화	말한 것	1	4	화	자, 운	1	4	화	자, 운	1
10	수	의사	2	8	수	신체	1	5	수	의, 사, 운	1	5	수	의, 사, 운	1
11	목	사상	2	9	목	말한 것	1	6	목	신, 계, 자	1	6	목	신, 계, 자	1
12	금	예술 (음악)	2	10	금	사회	1	7	금	자연	1	7	금	자연	1
13	토	예술 (음악)	3	11	토	말한 것	1	8	토	신, 의	1	8	토	신, 의	1
14	일	모의고사 2회		12	일	모의고사 2회		9	일	신, 의	1	9	일	신, 의	1
15	월	자연 (과학)	1	13	월	예술	1	10	월	신, 의	1	10	월	신, 의	1
16	화	자연 (과학)	2	14	화	자연	1	11	화	자, 운	1	11	화	자, 운	1
17	수	운영	1	15	수	운영	1	12	수	의, 사, 운	1	12	수	의, 사, 운	1
18	목	운영	2	16	목	말한 것	1	13	목	신, 계, 자	1	13	목	신, 계, 자	1
19	금	신체	3	17	금	신체	1	14	금	사, 계	1	14	금	사, 계	1
20	토	의사	3	18	토	의사	1	15	토	자, 운	1	15	토	자, 운	1
21	일	모의고사 3회		19	일	모의고사 3회		16	일	신, 의	1	16	일	신, 의	1
22	월	의사	3	20	월	사회	1	17	월	사, 계	1	17	월	사, 계	1
23	화	사회	1	21	화	예술	1	18	화	자, 운	1	18	화	자, 운	1
24	수	예술	1	22	수	자연	1	19	수	의, 사, 운	1	19	수	의, 사, 운	1
25	목	자연 (과학)	1	23	목	운영	1	20	목	신, 계, 자	1	20	목	신, 계, 자	1
26	금	자연 (과학)	2	24	금	의사	1	21	금	사, 계	1	21	금	사, 계	1
27	토	운영	1	25	토	사회	1	22	토	자, 운	1	22	토	자, 운	1
28	일	모의고사 4회		26	일	모의고사 4회		23	일	신, 의	1	23	일	신, 의	1

▷ 공부 방법

이 시기에는 무한 암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요약 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직전까지 기본서를 주로 보았어요. 매일 주어진 내용에 대하여 인출 목록표를 보고 인출하고, 기본서를 통해 점검해 나갔습니다. 특정 내용은 암기하고 또 암기해도 기억에 남지 않아서 인출하는 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출과 문제 풀이에서 다른 문제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어요. 다행히 기본서에 기출 내용을 필기해 둔 것이 있어 키워드 중심으로 문제를 떠올리는 정도로 기출을 다루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직전 2회독 동안 특히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을 정리해 가져갔습니다.

모의고사를 풀 때는 스터디를 이용했고, 채점은 모범 답안과 조금이라도 결이 다를 경우 모두 틀렸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극도로 칼채점을 하여 실제 시험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보다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칼채점을 해야지 경각심을 가지고 더 주의를 기울여 공부하고 답안을 적게 되는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꼭 답안지를 구매해서 실제와 유사한 답안지에 작성하는 연습을 하세요. 시간 분배와 옷차림 등 사소한 것 하나까지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시뮬레이션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 모의고사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실 수 있을 거예요.

★ 아쉬운 점 (교육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기출 분석을 소홀히 한 점

다시 돌아간다면 기출을 더 꼼꼼히 공부할 것 같아요. 단순히 기출에서 다른 관련 이론을 인출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며 공부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출 분석 스터디를 활용해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분석하고 서로 출제된 문제를 교환해 풀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오답 노트를 반복해서 보지 않은 점

저는 암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오답 노트에 큰 비중을 두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계획할 때 오답 노트 복습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해 두니 계속 다음으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오답 노트를 몰아서 보려고 하기보다는 해당 파트를 공부할 때 매번 연결해서 보아야 꾸준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을 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9~10월 공부가 부족했던 점

저는 9~10월에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도 집중이 되지 않고, 외웠던 내용도 뒤돌면 새롭게 느껴지고는 했어요. 좌절도 많이 하고 자존감도 낮아진 두 달이었습니다. 이때 더 완벽히 공부했다면 점수가 조금은 더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암기하고 또 암기하는 9~10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체력 안배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이 오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으니 나중에 외운다는 생각보다는 그때그때 공부를 잘해두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 개론·각론을 배우는 시기에 꼼꼼히 암기해두지 않았다면 9~10월에 한 공부로는 절대 합격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논술

▷ 3~4월 : 논술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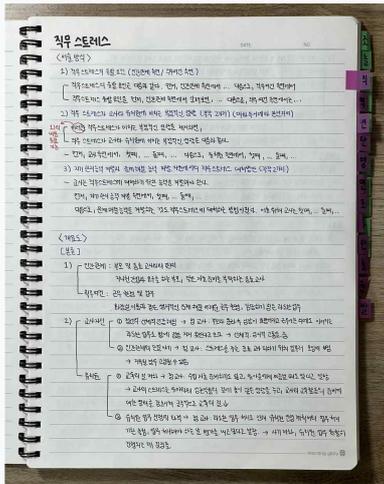
주변에 1~2월에 논술 강의를 수강하는 동기들이 있어 불안한 마음이 컸는데 막상 해 보니 3월부터 시작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초수라 논술에 대한 감이 전혀 없었지만, 일단 부딪혀보자는 마음으로 강의에서 제시되는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강의 수강 이후에는 논술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논술 노트에는 ① 진술 방식 ② 개요도 ③ 모범 답안 이렇게 세 가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진술 방식을 정리해 보며 읽기 쉬운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고, 강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모범 개요도 또한 다시 적어 보며 논술에 제시된 내용을 익히고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에서 암기가 필요한 내용은 표로 정리하여 논술 노트에 같이 붙여두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논술 노트만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어 좋았어요.

서론·결론의 경우, 저는 만능틀을 몇 가지 만들어 두고 거기에 내용을 적용하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게 느껴져서 그때그때 주제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서론·결론이 본론만큼 어려워져서 문제의 서론·결론만 적고 챗 GPT를 이용해 보완해 보며 감을 익혀나갔습니다.

논술은 처음부터 답안지를 구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A4 용지에 작성할 때는 글의 분량이 가능되지 않으므로 꼭 B4 용지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논술 노트 작성 예시 ]



▷ 5~6월 : 교생 실습

5월에는 실습한다고, 6월에는 밀린 각론 진도를 따라잡는다고 논술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실습을 마치고 그 이후의 상황도 겪어 보니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 논술 일주일마다 1~2 문제 꾸준히 풀기 ★ 입니다. 밀린 각론 진도를 따라잡고 난 후 다시 논술을 쓰려고 하니 감을 잃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논술은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7~8월 : 논술 실전

논술 기초반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했지만, 강의는 제대로 수강하지 못하고 추가 자료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만 수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풀이 및 분석(1일)과 강의 수강 및 논술 노트 작성(1일)으로 나누어, 한 문제에 이틀을 할애하여 공부했습니다.

▷ 9~10월 : 강의 이후 논술 공부

9~10월에는 일주일에 2~3편의 논술 문제를 작성하였고, 따로 논술 노트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논술에 출제됐던 내용이 교육과정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기출 문제들의 개요도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용을 익혀두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논술 실력을 향상하는 것보다는 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논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해이실 · 법 · 안전

\* 해이실 · 법 · 안전은 1~10월 모두 같은 방식으로 매일 공부했습니다.

▷ 해이실

공부를 시작하며 해이실 내용을 2주 분량으로 나누었습니다. 1월부터 내용을 읽으며 익혀두었고, 강사님의 강의 이후부터는 중요하다고 짚어 주신 내용을 암기했습니다. 이해 자료와 실행 자료의 놀이 사례는 매일 한 개씩 읽고 분석했습니다.

고시문의 경우, 매일 조금씩 나누어 '또히의 고시문' 프로그램을 이용해 타이핑했습니다. 시험을 볼 때 고시문 단어들 이 헛갈리는 경우가 있어 시험 직전에는 손으로 직접 적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차	고시문	총론 1 [누리과정의 성격 - 구성의 총질]	7대 안전	총론 2 (연성·운영 - 평가)	신 의 사	놀이실행자료 놀이이해자료	아동복지법 시행령	예 자
	논리 과정	[해설서]	[해설서]	[해설서]	[해설서]	[놀이이해자료]	[놀이이해자료]	[해설서]
	놀이 사례 해당	누리과정의 이해	누리과정의 성격 - 목적과 목표	구성적 총질 - 연성·운영	교수·학습 - 평가	개칭 누리과정과 유아의 놀이	놀이에 대해 묻고 답하기	민간 체육기 ㉔
	놀이이해자료 14개 (1일 1 사례 분석) 매일 하루 분량 문제 풀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주차	고시문	총론 1 [누리과정의 성격 - 구성의 총질]	7대 안전	총론 2 (연성·운영 - 평가)	신 의 사	놀이실행자료 놀이이해자료	아동복지법 시행령	예 자
	논리 과정	[놀이실행자료]	[놀이실행자료]	[놀이실행자료]	[놀이실행자료]	[놀이실행자료]	[놀이실행자료]	[해설서]
	놀이 사례 해당	개칭 누리과정과 교사의 역할	놀이지원자료로서의 교사 - 연성하기	놀이지원자료로서의 교사 - 교수·학습 실현하기 (1차)	놀이지원자료로서의 교사 - 교수·학습 실현하기 (2차)	놀이지원자료로서의 교사 - 평가하기	놀이지원자료로서의 교사	민간 체육기 ㉔
	놀이이해자료 5개 · 놀이실행자료 6개 (1일 1 사례 분석) 매일 하루 분량 문제 풀이							

▷ 법 · 안전

법은 강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였습니다. 해당 키워드가 암기되고 나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도 별도로 표시해 암기했습니다. 매일 3~4페이지 분량을 암기하였고, 굿 노트 앱의 테이프 기능을 활용하니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문제풀이반 이후부터는 '법 안전 특 특' 문제집을 구매해 문제집에 나누어져 있는 하루 분량을 매일 풀었습니다.

안전 부분은 '7대 안전'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으로 나누어 고시문과 함께 타이핑했습니다.

스터디

저는 원래 혼자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초수는 개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구술 스터디와 같이 공부 내용을 나누는 스터디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상 인증 스터디와 모의고사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 두 가지 모두 너무 추천하는 스터디입니다. 초수 선생님들은 개인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스터디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11월 : 기상 인증 스터디

동기들과 함께 공부 시작 시간을 인증하는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열품타 앱을 이용하여 평일 9시 이전에 책상 사진을 올려 인증하였어요. 스터디를 통해 매일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느끼며 동기부여도 되었습니다.

▶ 9~10월: 모의고사 스터디

모의고사 스터디 또한 동기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시험지 크기인 B4 용지로 인쇄하여 시험장 asmr을 들으며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고사를 풀어보았습니다. 교환 채점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스터디 덕분에 1차 시험 당일에도 스터디의 연장이라고 생각해 크게 떨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선생님들은 이렇게 주변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하는 공부 방법

▷ 개요도 작성하여 인출목록표로 활용하기

▷ 암기 어려운 내용 분량 나누어 반복하기

저는 건강 · 안전, 읽기 · 쓰기 단계, 사회 · 정서 발달, 미술 발달 단계, 운영 부분 등의 내용을 암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해당 내용을 2주 분량으로 나누어 매일 암기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니 취약한 부분의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상기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건강개요, 정신건강	영양 관리	감염병 대응 ①	감염병 대응 ②	안전개요, 실내외 안전	교통안전, 약물 오남용	-
기본 사항	1-2	3-4	5-6	7-8	9-10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성폭력	약동학대	실종 및 유괴	전자미디어	자연재난	사회재난	-
11-12	13-14	15-16	17-18	19, 인공효능	기본사항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영) 백기, 리지켈스 (쓰) 백기, 리지켈스	애착이론, 정서 발달	(영) 자롱고 (쓰) 영	차이개념, 자기 통제능력	(영) 태미스과 악우 (쓰) 미행자이종숙	사회인지, 친사회성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영) 콜백이 (쓰) 심즈비	도덕성, 공격성	(영) 심즈비 (쓰) 심계단즈	우정, 권위	(영) 악리, 메이슨과 맥고익	공정성 이론, 성 역할, 행복	-

2. 2차 준비 방법 (+ 2차 문제 및 답안 복기, 평가실 상황 기록)

1차 결과 발표 전

저는 1차가 끝난 후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답안 복기도, 가채점도 하지 않았어요. 2차 준비는 당연히 하지 않았겠지요. 강의는 2주 차까지만 간신히 들어두었고, 과제는 하지 않은 상태였답니다.

1차 결과 발표 전에 이 글을 읽으시는 선생님들께 정말 1차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무조건! 2차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차 합격 후 2차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 불안함을 느끼시는 선생님들께는 저도 합격했고, 또 2차는 정말 연습하고 노력하는 만큼 성장하는 것 같으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꼭 합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차 결과 발표 후

결과 발표 후, 먼저 3일 동안 밀린 강의를 빠르게 들었습니다. 스터디는 학교에서 같은 지역을 응시한 동기 · 선배들과 구성해 주어 참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스터디를 매일 진행 하였지만, 점차 개인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일주일에 2회로 횟수를 줄였습니다. 4명의 스터디원이 서로 다른 문제를 맡아 2세트씩 시연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층 면접과 수업 실연의 스터디 진행 방식은 아래에 자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1차 때는 스터디를 거의 진행하지 않았지만, 2차는 스터디가 필수인 것 같아요. 인원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2~3명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른 스터디원의 면접 · 수업을 보며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저의 면접 · 수업에 대해 다양한 피드백도 들을 수 있으며,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 머리를 맞대 해결해 나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과 지지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 시험장 후기

대기실에 들어가면 전자 기기를 제출하고 자리에 앉아 수험표와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대기실 내에서는 전자 기기 사용이 불가하며, 종이로 된 자료만 볼 수 있습니다. 관리 번호 추첨 시간이 되면 가방, 자료, 외투 등을 큰 가방에 담아 복도에 두고, 물, 화장품, 간식 등 대기실에서 사용할 물건은 작은 봉지에 담아 정리합니다. 관리 번호 추첨 후 자리를 재배치 하고 B4 용지와 볼펜을 나누어 주면, B4 용지에 기억해야 할 내용이나 만능틀을 자유롭게 적어 보며 대기합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기 5분 전, 대기실 앞 책상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잠시 대기하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복도 감독관, 타 구상실 동일 관리 번호 수험생과 함께 구상실로 이동합니다. 구상실은 1인 1실이었고, 감독관과 마주 보고 앉아 설명을 들은 후, 구상을 합니다. 계측기는 오른쪽 대각선에 있으며 큰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상을 마친 후, 평가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이전 관리 번호가 나오면 타 구상실 동일 관리 번호 수험생과 동시에 평가실에 입장합니다. 대기할 때 구상지를 보며 빠르게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평가실에는 평가 위원 세 분이 앉아 있습니다. 평가실의 계측기는 구상실의 계측기와 동일합니다. 인사하고 관리 번호를 말한 후, 평가 위원의 "관리 번호 00번 맞습니까? 준비하셨으면 지금부터 계측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답변을 시작합니다. 답변을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고 평가실을 나옵니다. 구상지와 관리 번호 목걸이를 제출한 후, 복도에서 전자 기기를 수령합니다.

\* 화장실은 귀마개, 헤드셋을 착용한 후 복도 감독관과 함께 갑니다. 먼저 손을 든 순서대로 한 명씩 이용할 수 있으니 칠판에 붙어 있는 관리 번호별 시간표를 참고해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 **심층 면접**

▷ **공부 방법**

스터디를 통해 11~25년의 기출을 다루고, 이후 제본집 연습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처음부터 실전과 같이 연습하면 스터디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것 같아, 초반에는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점차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부터 시선 분배 연습도 함께 하였는데, 이걸 처음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터디 때는 3명의 스터디원을 번갈아 보고, 개인 공부를 할 때는 벽에 포스트잇 세 장을 붙이고 번갈아 보며 연습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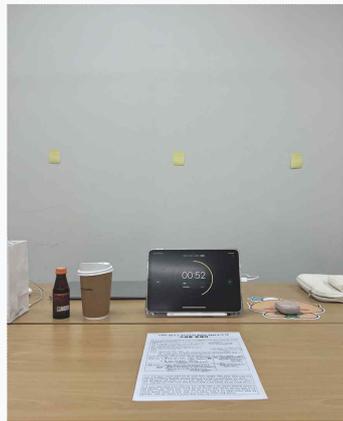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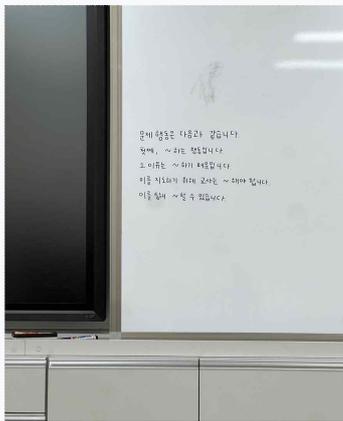
[스터디 진행 방식]

1주차	구상형과 즉답형 모두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스터디에서는 구상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연습
2주차	구상형은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즉답형은 구상 없이 바로 답하기
3주차	스터디에서 시간 맞추어 함께 구상하고, 실제와 같이 연습

개인 공부를 할 때는 하루에 2~3세트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클로바노트' 앱을 이용해 답변 내용을 녹음하고 박수민 강사님 자료에 있는 모범 답안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첨삭했습니다. 저의 답변과 모범 답안의 결이 완전히 다를 경우에는 모범 답안의 키워드를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답변을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답변틀도 만들어서 필요한 내용들이 빠지지 않고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면접을 위한 풍부한 지식을 구성하려면 만능 노트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공부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별도로 만능 노트를 만들지는 않고 블로그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공유해주신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1주 차에는 인성적 자질을 중심으로 외우고, 2·3주 차에는 전체 내용을 매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 하나하나 상세히 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매일 읽는 것을 통해 익숙해지도록 했어요.

[답변틀 암기 및 포스트잇 활용 연습]



▷ 답안 복기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격이라, 심층 면접은 정말 자신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끝까지 말하고 나오는 것이 목표일 정도였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면접 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키워드 위주로 복기해 보았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원] 2026 유아 임용 심층 면접 복기 (약 6분 30초)

<구상형 1번 : 문제점 3가지와 각각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방안>

1.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중재한 점  
(이유) 문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지도 어려움, 억울한 감정이 드는 유아, 교사의 지도에 대한 신뢰 저하  
(지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두 유아의 이야기 모두 듣고 상황 객관적 파악 or 주변 목격자 유아들의 이야기
2. 유아의 말을 믿지 않고 거짓말했다고 생각한 점  
(이유) 교사는 편견을 갖지 않고 유아의 말을 신뢰하는 태도 갖추어야 함, 유아 거짓말하는 아이로 낙인  
(지도)
3. 유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점  
(이유) 소심한 성격의 유아이므로 교사가 작은 표현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야 함  
(지도) 유아와 눈높이를 맞추어 더욱 효과적인 소통

<즉답형 1번>

1. 융통성 있는 태도

유아들의 반응에 따라 적절히 교수 방법과 자료 등 유연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함  
 융통성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여 유아 어려움과 힘들 느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태도 필요

2. 연구하는 태도

유아의 연령 수준에 적절한 지도 방법에 대해 연구해야 함  
 안일하고 나태한 자세의 교사는 성장과 발전 이룰 수 없음  
 전문 서적 읽기와 연수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한 연구 필요

<즉답형 2번>

1. 소통 능력

동료 교사에게 화내는 것 문제 해결에 도움 되지 않음  
 효과적인 소통 능력을 갖추고 소통하여 문제 해결해 나가야 함

2. 솔직성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표현하지 않음  
 교사 사이의 오해 가중되어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하여 관계 긍정적으로 맺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업 실연

▷ 공부 방법

저는 1차 발표 전까지 만능틀도 만들어 두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스터디를 진행하며 만능틀을 하나씩 만들어 나갔습니다. 스터디에서 실연할 수업의 만능틀을 전날 미리 만들어 암기하고, 스터디에서 직접 수업하며 적용한 뒤, 개인 공부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하니 쉽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만능틀을 만들 때는 박수민 강사님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블로그 자료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능틀을 계속해서 상기하기 위해 매일 아침 4~5개의 수업 유형 만능틀을 적거나 말로 해 보았습니다.

수업 유형별 연습은 가장 먼저 전체 유형을 한 번씩 실연한 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을 반복해서 연습하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캠페인, 과학, 바깥 활동, 자유놀이 등 평가원 지역에서 크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부분은 후순위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갑자기 변화를 추구하여 신유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 전까지 한 번은 꼭 실연해 보았어요. 시험이 다가오는 시점에는 이야기 나누기, 동시, 게임, 신체와 같이 출제 예상 유형을 선정하여 해당 유형을 중심으로 하루에 4개의 수업을 실연해 보았습니다.

수업 실연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 조건 충족 ★ 입니다. 조건 충



▷ 문제 및 답안 복기

어떤 유형이 나올지 몰라 떨렸을 뿐이지 수업 실연은 심층 면접에 비해 자신 있었습니다. 동시 짓기 및 감상 활동은 처음 진행해 보는 것이었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똑같은 거라는 생각에 그냥 내가 구상한 대로 자신 있게 하고 나오자고 생각했습니다. 평가실에서는 평가 위원분들이 쳐다보는 것이 너무 잘 느껴져서 그냥 유아들만 본다고 생각하고 평가 위원은 아예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긴장하니 구상지도 잘 안 보여서 도입, 전개 때는 구상지를 보지 않고, 마무리 부분에만 구상지를 조금 보았습니다. 저는 2차 시험에서 보여준 수업이 여태까지 연습했던 것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수업이었고, 만점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복기 내용이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원] 2026 유아 임용 수업 실연 복기 (약 12분)**

<b>활동명</b>	겨울아, 안녕!	<b>활동 유형</b>	동시 짓기 및 감상 활동
<b>인원</b>	5세, 8명	<b>누리과정</b>	자연탐구, 의사소통
<b>활동 목표</b>	1.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안다. 2. 겨울에 대한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동시에 표현한다. 3. 동시를 즐겁게 감상한다.		
<b>누리과정 관련 요소</b>	1.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짓는다. 2.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3.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b>사전 유아 상황</b>	겨울 산책을 다녀와서 “겨울 날씨가 추웠어!”, “나는 눈사람 봤어!” 이야기함. 동시 짓기 배우기 활동을 함. 겨울 동시를 짓고 감상해 보기로 함.		
<b>&lt;수업 조건&gt;</b>			
<b>도입</b>	1. 자리 배치 2. 겨울 날씨에 대한 특징 이야기 (겨울 특징 탐색 발문) 3. 활동 소개 4. 활동 약속		
<b>전개</b>	1. 겨울을 주제로 한 동시 짓기를 지원 2. 글씨 쓰기 어려워하는 유아에 대한 지원 3. 시적 표현(운율, 의성어, 의태어) 넣어서 동시 짓기 지원 4. 동시 감상에 대한 지원		
<b>마무리 (일부)</b>	1. 활동 평가 2. 후속 확장 활동 *전이 내용 구상지에 적혀 있음		

#도입

♪ 손이 시려워 콩! 발이 시려워 콩! 겨울 바람 때문에 콩! 콩! 콩! (추워서 움츠리는 모션)

나비반 친구들이 '겨울 바람' 노래를 부르며 선생님 앞에 모여주었네요. 8명의 친구들이 4명씩 두 줄로 매트 위에 앉아주었어요. 그래요. 친구들이 노래에 맞추어 추워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내 주었지요. 오늘은 선생님이 친구들과 함께 보려고 나비반 놀이 패들릿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함께 볼까요? 전자 칠판을 보니 어떤 사진이 보이나요? 그래요. 우리가 겨울 산책을 나갔던 사진이지요? 산책을 나가보니 겨울은 다른 계절과 어떤 점이 달랐나요? 그래요. ○○이 말처럼 정말 추운 날씨였지요. ○○이 말처럼 다른 계절에는 볼 수 없는 눈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겨울 풍경을 보고 다양한 것들을 느끼고, 또 동시 짓는 것을 배우고 나서 겨울을 주제로 한 동시를 함께 지어보기로 했었지요. 우리 ○○이는 동시를 지을 때 약속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어떤 약속이 필요할 것 같나요? ○○이는 동시를 열심히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 ~ 동시를 지을 때 장난치지 않고 정말 시인이 된 것처럼 열심히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군요. 그리고 ○○이는 친구들의 표현을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동시를 짓고 그 동시를 함께 감상하기로 했으니 친구들의 표현을 모두 존중해야겠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말해준 것처럼 동시를 열심히 짓고, 또 친구들의 표현을 모두 존중하며 동시를 짓고 감상해 보도록 할까요?

#전개

좋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친구들은 겨울을 주제로 한 동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나요? ○○이는 추운 날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따 동시를 지을 때 글씨를 모르는 친구도 잘 적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단어들을 전자 칠판에 적어주도록 할게요. (적는 시늉)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는 눈사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군요. . . . 친구들이 이렇게 겨울을 주제로 한 동시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다양하게 이야기해 주었네요. 여기에 적힌 내용과 또 친구들이 자유롭게 떠올린 내용으로 동시를 지어보도록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쓰기 도구와 그리기 도구를 챙겨서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서 동시를 지어보도록 합시다. 시계의 긴 바늘이 7에 갈 때까지 동시를 지어보도록 해요.

우리 ○○이는 어떤 동시를 지어보고 있나요? ○○이는 아직 무슨 내용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 글씨를 적는 게 어려워서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러면 여기 전자 칠판을 보고 어떤 내용을 적으면 좋을지 생각해 볼까요? '추운 날씨'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고 싶어요? 어! 그런데 옆에 앉아 있는 □□이가 ○○이를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아 ~ ○○이가 모르는 글자가 있으면 □□이가 적는 것을 도와줄 거예요. 그래요. □□이가 ○○이를 도와주기도 하고, 만약에 □□이도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요.

△△이는 어떤 동시를 지어보고 있나요? 아 ~ △△이는 눈사람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었어요. 눈사람이 눈, 코, 입이 있다는 것을 적어보고 싶었군요. 아 ~ 그런데 '눈사람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네.'라고 적으니까 동시가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동시가 더욱 재미있어질까요?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동시를 떠올려 볼까요? △△이는 '바퀴야 바퀴야' 동시가 떠올랐군요. 아 ~ 동시에서 '쌩쌩쌩', '쌩쌩쌩', '데굴데굴'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아 ~ 그래서 △△이도 눈, 코, 입의 생김새를 재미있게 표현하고 싶어요? 눈은 돌맹이로 만들었으니 '동글동글'이라고 할 것이군요. 그리고 코는 지난번에 나뭇가지로 만들어서 '뽕뽕 뽕뽕'이라고 하고 싶어요? 아 ~ 입은 길쭉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길쭉길쭉'이라고 할 거예요? △△이 말처럼 눈, 코, 입의 생김새를 반복되는 말로 표현하니 동시에 더 재미있어졌네요.

나비반 친구들! 우리가 동시를 짓기로 했던 시간이 모두 되었어요. 그래요. 시계의 긴 바늘이 7에 가까워지고 있지요. 모두 동시 짓기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나요? 벌써 동시를 짓고 쓰기 도구와 그리기 도구를 정리

하고 있는 친구도 있군요. 그럼 자신이 사용한 쓰기 도구와 그리기 도구를 모두 정리하고 자리에 다시 모여 볼까요? 친구들이 자신이 사용한 도구를 모두 정리하고 모여주었네요. ○○이는 친구들의 동시를 어서 들어 보고 싶다고요? 아 ~ 다른 친구들은 어떤 내용으로 동시를 지었는지 궁금하군요. 그럼 우리 동시를 소개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동시를 소개해 줄 시인 있나요? ○○이가 소개해주고 싶군요. ○○이의 동시를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이가 지은 시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겨울은 추워요> 이네요. 동시의 제목을 보니 어떤 내용일 것 같나요? □□이는 겨울의 추운 날씨를 담은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했군요. 그럼 동시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모두 ○○이의 동시를 잘 들어보았나요? 동시를 들어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우리가 겨울 산책을 나갔을 때처럼 정말 추운 날씨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쌩쌩 부는 바람', '핑핑 내리는 눈'에 있는 '쌩쌩'과 '핑핑'처럼 반복되는 말이 나오니 재미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의 동시를 듣고 다양한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네요. ○○이 발표해 주어서 고마워요. 이제 들어가 주어도 좋아요.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의 동시를 감상해 보았어요. 그래요. 부끄러워서 소개하지 못한 친구들의 동시는 우리가 전시한 후에 직접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마무리

우리 오늘은 이렇게 겨울을 주제로 한 동시를 읽어도 보고, 동시를 감상해 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동시를 짓고 감상하니 어떤 점이 가장 재미있었나요? ○○이는 겨울 산책에서 본 풍경을 동시로 지어보니 정말 시인이 된 것 같았나요? ○○이는 겨울이 돼서 날씨가 추워지니 길쭉길쭉한 목도리와 폭신폭신했 장갑을 해야 한다는 동시를 지은 것이 재미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지고 계절이 변화한 것을 보고 느낀 것을 시로 표현해 준 것이 재미있었군요. 그리고 ○○이는요? 반복되는 단어를 넣어서 동시를 지으니 더 재미있었어요? 동시에 반복되는 단어를 넣으니 더 재미있는 동시가 되었고 말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군요. 그리고 ○○이는 친구들의 동시를 감상하는 것이 좋았어요? 아 ~ 다른 친구들의 동시를 감상하고 생각과 느낌을 말하니 좋았군요. 우리 친구들이 동시 짓기와 감상 활동을 재미있게 해주었네요. 이렇게 동시를 짓고 또 감상해 보니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아 ~ ○○이는 동시를 전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비반 말고도 다른 유치원 친구들이 겨울 동시를 읽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군요. 아 ~ 그런데 □□이는 동시를 창문 옆에 전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이 내리는 모습이 보이는 창문 옆에 전시하면 겨울 풍경을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합쳐서 우리가 지은 동시를 복도 창문 주변에 전시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요. 그럼 정말 나비반 말고도 다양한 유치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동시를 감상할 수 있겠어요. 아 ~ 그리고 ○○이는요? 다른 동시를 또 지어보고 싶어요? 이번에 동시를 지은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다른 계절이 왔을 때 또 동시를 지어보고 싶군요. 그러면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져서 봄이 오면 봄과 관련된 동시를 지어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 3. 수면 및 건강 관리 방법

수면 시간은 상반기 8시간, 하반기 6~7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졸거나 하품하느라 공부 효율이 떨어지는 스타일이라 충분히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 시간을 늘린다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다른 자투리 시간을 먼저 줄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용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년도 11월부터 4월까지 헬스를 하였는데, 더 빨리 운동을 시작해서 체력을 길러둘 걸 후회했어요. 원래도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 9~10월에 너무 지쳤었습니다. 상반기에는 꼭 매일 1시간씩 운동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했던 기간에는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잠도 잘 와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 외워지는 내용을 작은 노트에 적어서 천국의 계단을 오르며 보니 정말 잘 외워져서 이 방법도 추천해요.

### 4. 스트레스 극복 방법

저는 야구장 가는 것이 취미라 8월 이전에 4번 정도 직관을 다녀오며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매일 같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이 따분하게 느껴질 때는 좋아하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사실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수험생'이라는 타이틀에 갇혀서 동네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친구들과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았답니다. 그러나 지나고 생각해 보니 시험을 준비하며 내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나를 잘 보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공부할 때는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쉴 때는 온전히 쉬을 가지세요. 이렇게 몸과 마음을 잘 가꿀 때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5. 소감 (공부하며 느낀 점)

공부하며 느낀 것은 '임용은 기세다' 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공부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을 당연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해 보니 임용은 정말 다른 선생님들과의 싸움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놀고 싶어도 참을 수 있어야 하고, 피곤해도 졸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지레 겁먹지 말고,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매일 꾸준히 해나간다면 합격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행운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